

Sinopec, 중국 최대기업 지위 확고

포춘, 2011년 매출 2조5057억위안으로 1위 ... CNOOC도 2위로 부상

중국 최대기업은 Sinopec(중국석유화학)으로 조사됐다.

경제전문지 포춘 중국어판이 발표한 <2012년 중국 500대기업>에 따르면, Sinopec이 2011년 매출 2조5057억 위안(451조원)으로 중국 최대기업으로 선전됐다.

Sinopec은 2010년에도 총매출 1조9000억위안(313조원)으로 1위를 차지했었다.

Sinopec에 이어 CNOOC(중국석유천연가스), 중국이동통신, 중국건축공사, 중국공상은행, 중국철도공사, 중국 철도건설, 상하이자동차집단, 중국건설은행, 중국인수보이 10대기업 명단에 올랐다.

중국공상은행은 2011년 2083억위안(37조5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수익성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선정됐고 이어 중국건설은행, CNOOC, 중국이동통신, 중국은행 등이 5위권 선두그룹에 올랐다.

500대기업의 총매출은 23조7000억위안(4266조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으며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50.4%를 차지했다.

2011년 새로 중국 500대기업에 오른 곳은 58개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7/16>